

노인의 체험을 통해 본 1950·60년대 가족윤리 고찰

A study on the family ethics in 1950s and 1960s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elders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 수 이 정 덕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김 일 명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 사 최 은 경
강 사 전 미 경

Department of Home Economic Education Doong-Guk University
Prof. : Lee Chung-Duk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Research Fellow : Kim Il-My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 Education Doong-Guk University
Lecturer : Choi Eun-Kyung
Lecturer : Jun Mi-Kyung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맺음말 |
| II. 전통적 가족윤리의 붕괴과정 | 참고문헌 |
| III. 노인의 체험을 통해 본 가족윤리 | |

< Abstract >

During the period of 1950s and 1960s extreme changes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had a great influence on family ethics, since the western civilization had been introduced to this nation in late 19th century.

This paper studied the family ethics during the above periods by interviewing elders(average age 77) who had couple relations at that time focusing the followings. During the period, ① what is the view of family? ② what are the actual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married couple ethics? ③ what are the actual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thics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① The indispensable requisite of the parents is a son who functions as the tool for enhancing social

position of their family rather than succession of them. The nuclear family is regraded ideal, but the concept of nuclear family of them is far different from that of western.

- ② The married couples accepts the given couple relations in the name of bringing up their children. The ideal image of wife is traditional wifely virtues and that of husband is ability of making money.
- ③ The parents emphasize education and success of their children for enhancing the social position of their family, while they still require some degree of moral standards to their children. The parents believe that the best filial piety is making good lives of their children's own, which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filial piety norm.

I. 들어가는 말

개인으로서의 가족원은 인류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場인 '가족'에 담겨져 있으며 가족은 흔히 사회의 기본단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비롯한 사회적 틀은 가족과 가족 구성원인 개인의 행위와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가족/사회는 서로 끊임없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된다.

1894년 갑오경장을 시작으로 서구문화가 '은자의 나라' 조선사회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래 한반도에서는 근대화를 위한 도정이 시작되었다. '개화'의 물결과 사회적 변동은 새시대의 노래를 알리는 신호였으며,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온 국민에게 안겨주었다. 그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체계'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삶의 철학은 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오랜 세월을 두고 전개될 새로운 시대의 導入部-고난과 시련의 도입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태길, 1985).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통치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을 맞이하면서 종지부를 찍었고, 일본의 2차대전 패망이 가져다준 해방은 독립국가에 대한 청사진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극도의 혼란을 가져왔다. 특히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일제가 한반도를 도망치듯 빠져나가게 되자 2차대전의 승리가 된 연합군의 대표주자인 미국은 이 땅에서 갑자기 떠오른 우리의 우방국이 되었다. 해방을 가져다준 '고마운' 나라 미국의 문화에 대한 이 땅의 대다수의 지식인과 일반인들은 무조건적인 찬양을 보냈고, '깨어있는 선부'가 되기

위해 우리의 문화와 윤리를 전근대적인 廢風으로 몰아세우면서 미국의 문화와 사고를 모방하기에 분주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은 의식의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였으나 과거의 역사가 재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시 태어남은 더욱 큰 혼란을 가져올 뿐이었다. 이후 6·25 사변으로 시작된 1950년대의, 4·19혁명으로 출발한 1960년대의 시대적 혼란은 개인/가족/사회의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으나 이 전환점이 되는 1950년대, 60년대에 대한 가족연구는 물론이거니와 가족윤리에 관한 연구 역시 불모지와 다름없다.

반면에, 우리가족은 구조적으로는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가족명리, 가족폭력, 혼외관계등 심리적 해체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관계의 도덕적 행동규범'을 어떻게 규정하는가하는 가족윤리의 정립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김일명, 1985). 특히 가정학은 현재와 미래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인적, 물질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황덕순 외, 1985). 그러므로 '다원화' 사회에서 가족과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종합응용학문으로서의 가정학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규범의 확립은 도모할 수 있는 가족윤리의 연구는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50·60년대 가족윤리를 고찰하고자 하는 본고는 이 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역사적 상황속의 혼란을 되짚어보고, 그 혼란이 근대화를 향해 치닫는 가운데 기존의 가치체계가 어떻게

붕괴되었으며 또 새로운 가치체계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윤리란 본래 사람들 사이의 원만한 관계와 질서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규범을 주축으로 삼고 형성되는 삶의 지혜(김태길, 1995)로, 본고에서는 가족윤리를 '가족관계에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도리'로 개념짓고,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1950·60년대 가정관은 무엇인가?

둘째, 1950·60년대 부부윤리의 실상과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1950·60년대 부모자녀윤리의 실상과 특성은 무엇인가?

이와같은 연구문제의 究明을 위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청장년기로서 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지금의 노인들의 체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본고는 한 개인, 한 집단, 한 조직체 또는 한 지역공동체 경험과 그러한 경험을 스스로 해석하는 상황규정을 그들의 입장에서 연구하려는 생활사적인 접근(서정희, 1996)을 지향하고 있다. 생활사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인간행위란 행위자 자신의 입장에서 연구하여야 된다는 전제(김경동의, 1986; 서정희, 1996)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하여 그 시대를 산 노인들의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그 시대의 윤리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같은 접근방법은 이 시대를 살아있는 언어로 가장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노인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기 전에 이 작업은 여러 한계점¹⁾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가족은 가족이 속한 사회를 면밀히 반영하며, 그 시대의 가족윤리의 변화는 그 당시의 사회윤리의 변동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극도의 혼란기로 표현되는 1950·60년대의 가족윤리에 대한 논의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

겨진다.

우리 연구자는 1950·60년대 가족윤리를, 그 당시의 삶을 또렷이 반영해 줄 수 있는 노인들의 회고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97년 가을학기에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아동·가족 전공의 대학원생이 면접자가 되어 비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하였으며, 이때 다양한 탐사질문이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선정기준은 7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과거의 삶(특히 1950년대와 60년대)을 정확히 기억해 내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를 지표로 삼았다. 또한 면접과정은 면접자가 질문내용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자유로이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시간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하루종일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면접자가 주로 응답자의 집을 방문하여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면접의 전과정은 응답자의 양해아래 분석을 위해 녹음되었다. 녹음내용은 각 면접자가 전체의 내용을 전사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윤리와 부모자녀윤리 두 부분으로 분류되는 본고의 질문지는 윤리학, 사회학, 아동학을 전공한 70세 이상의 학자들에 의해 안면타당도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질문지의 내용이 조금 수정되었다. 70세 이상의 학자들에게 안면타당도를 의뢰한 이유는 조사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공유한 동류집단으로서 그 시대를 체험으로 경험하지 못한 연구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그 밖에 설문지 작성과 면접과정 그리고 면접후

1) 본고는 13명의 노인만을 심층면접한 논문으로서, 이질적인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삶의 현상으로 이 시대를 거처간 모든 노인들의 삶을 '대면'하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 또한 1950·60년대의 윤리적 실상에 대한 노인들의 회고는, 이후 50년 가까운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희석될 수도 있으며, 지금의 생활이나 의식이 그 당시를 투명하게 고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소수의 제한된 몇몇 노인들의, 제한된 경험일지라도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삶을 그들 스스로의 해석에 기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의 모든 과정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 박사과정 수업중에 논의되었고, 이들에게도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고는 총 13명(할아버지 4명, 할머니 9명)을 면접하였고, 이들의 평균나이는 77세이며,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1	77세의 할머니로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7남매의 둘째로 태어나 어의동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세에 중매로 결혼하여 30세의 남편(막내)에게 체취로 시집을 가서 4남매를 두면서 농사를 짓는 남편을 도우면서 살았다. 47살에 남편과 사별하였고 지금은 막내딸과 살고 있다.
사례 2	76세인 할머니로 아버지는 전자를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7남매의 넷째로 태어나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7세에 11세 연상인 지금의 할아버지와 중매로 결혼을 하였으며, 남편을 적극 도와 포목점, 가구공장 등에서 일했고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지금은 할아버지와 살고 있다.
사례 3	74세인 할아버지로 7남매의 셋째로 태어나 상업학교까지 마쳤으며, 23세에 중매로 결혼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생활하였다. 3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사례 4	78세인 할머니로 2남 2녀의 맏딸로 태어나 학교는 다니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면에서 공무원으로 일 하였으며 17세에 24세의 남편과 결혼을 하였고, 혼례식 다음날 신랑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남편은 무직이었으며(부모님의 재산으로 삼) 현재 3남 1녀를 두고 있으며 59세에 남편을 여의고 현재 차남과 살고 있다.
사례 5	70세의 할아버지로 한약제를 만드는 아버지 슬하에서 2남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신학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27세에 7세 연하인 부인과 중매결혼하였으며, 지금까지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현재 2남 3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모두 출가하였고, 지금은 부인과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다.
사례 6	75세의 할머니로 아버지가 공무원을 하는 집안에서 4남 3녀의 세째딸로 태어나 대학교를 중퇴하였다. 22세에 중매로 사업을 하는 25세의 남편과 결혼하였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아르바이트 삼아 생활하였다. 3남 3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부부와 살고 있다.
사례 7	72세의 할머니로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4남 2녀의 둘째딸로 태어나 보통학교를 중퇴하였다. 16세에 중매로 남편과 결혼하였으며,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44세에 남편을 여의고 현재 셋째 아들과 살고 있다.
사례 8	81세의 할아버지로 동학단 지휘관이었던 아버지 슬하에서 4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사범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교육학과, 국어국문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4살에 1살 연하인 부인과 결혼을 하고 32년간 교원에 종사하였다.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77살에 부인이 사망하고 현재 장남과 살고 있다.
사례 9	78세의 할머니로 농사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1남 2녀의 장녀로 태어나 대학을 졸업(간호학 전공)하였고, 25세에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하였으며, 간호사로 일하면서 생활하였다. 5남 2녀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며, 64세에 남편을 여의고 현재 막내아들과 살고 있다.
사례 10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태어나(78세)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1남 1녀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아학으로 공부하면서 17세에 중매로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하였다. 3남 1녀를 두었고,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던중 41세에 남편과 사별하였으며, 현재 막내아들 부부와 살고 있다.
사례 11	85세의 할아버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을 두었으며, 2남의 장남으로 태어나 농고를 졸업하였다. 21세에 중매로 결혼을 하면서 대한동운에서 일하였고, 2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부인이 사망하면서 현재 둘째 딸과 살고 있다.
사례 12	75세의 할머니로 과수원을 하는 가정에서 8남매의 둘째로 태어났다.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20세에 중매로 25세의 직물업을 하는 남편(장남)과 결혼하였다. 남편을 내조하고 2남 2녀의 자녀를 기르면서 생활하던중 65세에 남편이 사망하였다. 현재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들과 가까이 살고 있다.
사례 13	83세의 할머니로 아버지는 한의원을 하였다. 9남매의 다섯째로 태어나, 보통학교를 졸업하였으며, 20세에 중매로 철도공무원에 재직중인 24세의 남편과 결혼하였다. 전업주부로서 2남 2녀의 자녀를 두었고 77세에 남편을 여의고 지금은 장남과 살고 있다.

II. 전통적 가족윤리의 붕괴과정

1. 아노미로서의 1950년대, 혼란속 출발으로서의 1960년대

근대화는 서구의 '문명인'들이 미개한 비서구인들을 경멸하고 배제하여 그 문화를 파괴하는 과정이었다는 고백은 이제 서구 지식인들에게는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다(조혜정, 1994). 서구의 문물이 한반도에 점철되기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난 실학파로부터 이어져온 근대 개혁정신이나 개화파 지도자나 민중세력인 동학세력이 겨우 싸이 트이기 시작할 무렵 근대화의 거센 물결이 밀려왔기에, 우리의 자생적 노력으로 우리의 '근대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세계 열강의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기반으로서 식민지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근대사는 우리가 이땅의 중심세력이 되지 못하면서 고난과 시련은 시작되었다.

1945년 갑작스런 8·15 해방은 온 국민에게 '해방'의 기쁨으로 만세를 부르게 하였고, 36년간의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당당한 독립국으로 세계지도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5년간의 해방공간에서는 극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이후 발발한 1950의 6·25는 당시의 그 혼란과 부질서를 증폭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즉 전쟁이 가져다준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전시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와 불안, 좌절과 기아를 경험하도록 하였으니 윤리와 도덕이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파행된 사회적 혼란은 '도덕적 아노미' 상태로 이어졌다.

해방이 가져다준 '자유의 시대'를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종과 혼동하였다. 일본인이 도망가면서 남긴 가옥과 가재도구인 敵産은 어떤 원리나 기준 없이 째싸고 힘센 사람들이 임자가 되었고, 허위 이력서가 유통되었으나 이것을 문제삼지는 않았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부질서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다(김태길, 1995).

좌익과 우익의 궁극적인 신념체계의 차이는 타협과 절충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이데올로기를 달리한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역적'으로 보면서

1950년대는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3년간에 걸친 6·25 동란은 민족상잔의 비극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방 16개국과 중공군이 참여한 전면전으로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이 전쟁은 한국사상자 1백 30만명(부상자 포함), 북한 및 중공군 사망자 2백 50만명, 미국측 사상자를 11만명을 낳았고(최정세, 1987), 공업시설, 농업부분, 가옥, 산업, 교육시설을 흠더미로 만들었다. 6·25전쟁은 한반도의 38선을 기준으로 한 금강기로 종결되었으나 극명한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남북한의 대립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라전체가 전쟁터가 되었을 때 대다수의 굶주리고 혈벗은 일반인들의 삶의 고됨의 깊이는 가름할 길이 없을 것이다.

반면 정치적인 무질서는 경제적인 황폐와 비급가는 것이었다. 1948년 5월 총선거로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헌법이 제정된 후 '자유 민주주의'를 모토로 하는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구미에 맞게 헌법을 자주 뜯어고치는 가운데 몇 차례의 정치과동을 일으키는데, 52년 2차 대통령 선거에 앞선 5·26 정치과동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하는 개헌안이 주먹이 오가는 가운데 통과되었고, 이후 이러한 비민주적인 세태는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가능케 한 四捨五人의 캄짜쇼와, 정권과 결탁한 줄부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치러진 60년 3·15 부정 선거로 이어진다. 일반인에게 國父로 자처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가신들의 기막힌 횡포와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의 원조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초래된 경제적 파탄에 대한 분노는 학생과 국민들이 앞장선 4·19혁명을 낳았다.

실탄을 장비한 경찰의 총부리에 많은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던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켰다. 이후 수립된 장면의 민주당 정권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채 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정권에 의해 넘어가게 되었다. '구약의 일소', '인간개조'의 구호를 내걸고 혁신의 길을 표방한 박정희 정권은 끊임 없는 학생운동과 부딪치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총과 칼의 힘으로 주권을 침해

하였으며(김태길, 1995). 대통령 종신제를 시도한 '유신헌법'으로 박정권의 독재는 극에 달했으나 1979년 10·26사건으로 역사에서 종지부를 찍게 된다.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은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경제활동을 조장시키는 가치를 의미함(고영복, 1991)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이것이 길러질 틈 없이 단지 이윤과 안락과 부만을 추구하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윤추구는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를 조장하였다.

6·25이후 한반도는 분자 그대로 '폐허' 그것이었고, 이후 지속되어진 '보릿고개', '草根木皮', '朝飯夕粥'으로 표현되는 절대적 빈곤은 60년대 고도의 양적 성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은 박정희 정권을 구심점으로 진행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어느정도 타파되었다. 1960년대부터 새로운 출발으로서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되어서 '한강의 기적'이라 묘사될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이 달성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과 값싸고 풍부한 국내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공업화를 이룩하자는 정책이 4차에 걸친 5개년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사회는 급속히 변동하였다(고영복, 1991). 그러나 양적 성장에서의 성공과는 달리 한국경제는 성장의 성과를 고르게 분배하지 못했고, 자유시장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는 실패하였다(김태길, 1990). 결국 수출산업과 GNP의 상승, 소수 대기업의 육성, 공업화, 산업화 정책에만 치중한 나머지 분배의 불균형은 '貧益貧, 富益富' 현상으로 이어졌다. 가진자들의 사치와 낭비 그리고 퇴폐적 유흥, 불건전한 소비태도, 정경유착의 비리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위화감을 자극하였고, 이것은 급전에 대한 집착으로 발전하여 물질만능주의적인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전체의 불안과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왔다.

2. 도전받는 전통적 가족윤리

어떠한 관계규모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려 대상이 되는 규모의 변동되는 과정

을 시대상황과 관련해서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육선화, 1989), 우리는 우리의 가족윤리를 그 가족이 속한 사회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의 삶의 단위는 '가족'이었으며, 그 사회에서 지배하는 가치관은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을 맺어 형성되고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노력(최계석, 1979)인 '가족주의'로 모아진다. 농경사회이었기에 가족단위의 노동력을 요구했으며, 개인의 신분은 가족·가문의 신분에 귀속되었고, 개인이기 이전에 가족 속의 한 일원이었으므로 자신의 정체성 역시 '가족', '가문'속에서만 찾아야 했다.

또한 조선시대의 유교주의적 사회관계는 친소를 구별하는 차별주의가 사회를 조직하는 중요한 이념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을 강조한다. 이때의 인은 자기와 가까운데서부터 반대로 확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에 따라 그 인이 희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족관계의 규범을 통해서 가족적 질서를 확립하였고 그러한 가족질서의 확립을 통해서 전체 사회질서를 확립하였다(최흥기, 1981). 그러므로 가족을 '우리' 즉 '자아'로 인식한 전통사회에서는 상대와 나의 親疎에 의해 규범윤리가 결정되며, 가까움과 멀음을 분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혈연의 촌수가 된다. 그리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외형적인 장치인 禮는 그 멀고 가까움을 따르는 가운데서 생긴다(김태길, 1997).

이처럼 전통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던 통합된 가치와 선념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사생한 실학과 동학농민운동과 그리고 서구문물의 유입은 조선사회의 정체감을 뒤흔들기 충분하였기에 이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원리인 '가족주의'는 점차로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사회의 변동과 서구문물의 도입, 그리고 일제가 조선민족의 '황국화'를 위해 주도 면밀하게 시행되었던 30여년간의 근대 대중교육의 확산, 미군정,

6·25 등의 타율적인 힘과 이후에 뒤이은 전후의 혼란, 산업화·공업화로의 사회경제구조의 재편성 등에 휘둘러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족' 속에 함몰된 '개인'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기에 전통적인 가치체계의 변동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성과 생활태도에는 성별, 직업, 종교 등과 관계없이 모두 얼마간의 유교적 가치규범과 가족윤리를 가지고 있다(이정덕, 전미경, 1985). 그러나 이 가족윤리 규범이 과거의 그것과 같은 것은 아니며 무질서한 시대상황속에서, 산업화 과정속에서, 외래문화와의 접촉속에서 가족윤리의 하위영역들은 나름의 역동성을 가지고 변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였다.

해방직후 한반도의 혼란이 중추점이 없는 가운데, 내전과 국제전의 양자성격을 모두 갖춘 6·25전쟁은 일반인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신분제도와 가족제도 및 사회전반적인 구조와 윤리는 일체의 식민지 과정과 해방을 통해 크게 변화하였으나, 그 변화 속도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6·25전쟁이었다.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기존의 질서는 와해되고 변질되었으며, 가문의 문벌과 친족간의 강한 유대는 급박한 사회적 현실로 말미암아 단절을 초래하였고, 기동력을 요하는 가운데 신분이나 문벌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부각되는 사회로 변화하였다.

또한 이 전쟁은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리적 대이동을 강요하였고, 토지 중심의 정착된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은 긴박한 삶으로 이어졌다. 국군 전사가 약 14만명, 민간인 사망자 약 21만명, 행방불명자가 36만명, 전쟁고아가 5만 9천여명으로, 대부분의 가족에서 보여진 가족원의 결손은 이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말하고 있다(박용욱, 1985). 많은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산가족을 낳았고, 가족이 불타고 건물과 도로가 파괴되고 농토가 유실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오늘 하루 굶지 않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이기에, 윤리나 도덕은 사치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두되는 윤리적 문제는 다음의 구절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인간은 원래 약하고 고독한 존재이다. 거기에서 전쟁은 평상시의 질서와 가치기준과 기성 모랄을 뒤엎어 놓고 만다. 체면과 예의와 교양이 만들어 준 옷을 발가벗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전시의 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의 부단한 대결 속에서 위생적인 감정과 본능만이 노출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눈 앞에 귀중한 생명이 草芥같이 쓰러져 가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잔혹한 싸움 앞에서 이때까지 굶게 지내온 세계와 정신의 지주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 전쟁은 진정한 모랄과 생에 대한 의욕과 모든 질서를 빼앗아갔다. 황무지에는 공허만이 입을 열고 이 빈 공간에는 방종과 퇴폐와 나쁜 예교의 혼잡이 들어섰다(손장순, 1973; 박용욱 1985 재인용).

반면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남존여비의 수직적 질서는 신앞에는 모든 만인이 성과 연령의 구별없이 평등하다는 기독교 사상과, 성별의 구별없이 열린 학교의 장을 통한 근대교육, 남자만 믿고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했던 사회적 환경 등에 의해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집울타리 안의 사적영역만이 삶의 전 공간이었던 전통적인 女性像의 변화에 물꼬를 트게 한 것은 6·25 전쟁이다. 전쟁으로 인한 미방인 숫자는 1952년 3월 29만 3,676명으로 추산되었는데(동아일보사, 1975), 이처럼 갑자기 사망한 '남편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 장성한 '아들의 부재'는 남은 가족에게는 황망하기 그지없는 일로써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족중 누군가가 경제적 부양의 역할을 하여야 했으며, 그 역할은 어린 자녀를 둔 미방인에게 돌아갔다.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긴박한 전시상황은 여성이 가정안에서의 전통적 여성상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은 가족이 생산기능에서 소비기능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젊은이를 비롯한 산업일꾼들이 농토에서 공장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고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월급'을 받게 되었다. 과거 가부장에게나 주어지던 금전이 성별과 연령의 長幼와 관계없이 노동의 댓가로

서 '임금'이 지급되었다. 임금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있어 가족은 부양해야 할 단위가 되었고 가족내 개인의 도구적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달라진 사회제반 구조는 개인단위의 삶을 키우기에 충분하였다. 이제 도시로 떠난 청장년의 자녀는 농촌에 남아있는 가부장의 지휘 감독 영역의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인 무질서와 혼란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도덕적 혼란과 무질서에 대처하고 나아가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필요로 하였다. 전통적 가족규범의 원리에서 벗어나 가족밖의 현실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도구적' 측면이 중요하게 되었다. 도구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의 병폐는 작금의 사회분제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내 가족만의 안녕과 영속만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회전반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가족이기주의를 초래하게 된다. 가족의 안녕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 및 행동이 가족밖에서 바라볼 때는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나만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절대 아닌 상태에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아버지와 그리고 과거와 다름없이 사적인 영역의 안주를 강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가정안에서의 어머니들은 내 가족의 안녕과 신분상승이라는 확고부동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분투하였다. 이처럼 가족내 관계와 유대가 경제적 목적과 계층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면서 가족내의 결속력과 응집력은 사회전체의 결속력이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왜해시키는 작용을 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 부정입학, 치마바람, 상업화에 찌든 혼란분화, 관례화된 촌지문화 등의 출세제일주의와 物神化의 성향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자신의 보살핌 없이 초라한 삶의 유형을 자식에게만은 물려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진 대다수 중하층 이하의 부모세대들은 자기세대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신분상승을 내 자녀세대에는 기필코 달성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삶 자체를 자녀세대에 투자하는 형태를 낳았다.

III. 노인의 체험을 통해 본 가족윤리

1. 가정관

평균연령 77세의 노인들은 1950·60년대의 혼란된 사회문화적 시간과 공간속에서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하여 새로운 일꾼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다.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정이란 어떠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지가 우리들의 관심사이다. 이들은 어떤 '가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가수'도 '이상'도 모르고 살았는가? 과거 전통사회처럼 개인은 가족을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시대상의 변화로 가족이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상의 의문은 이 시대의 가족상을 고찰해봄으로써 알 수 있으리라 여기진다.

어떤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들은 '아들'을 '자식'을 언급하였다.

"사물사 ... 먹고살기 바쁘데 다복한 집이 어디 있나? 그래도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잘 크고 하는게 부러웠지 ... 아들자식은 있어야지 ... " (77세의 할머니)

"어떤 가족이라기 보다는 그저 부모님 모시고 ... 어려운 살림이라도 아들을 낳아야죠 ... 딸은 천했지" (74세의 할아버지)

"부러운 가정이라 ... 아들 삼형제는 있어야 해요. 자손이 골고루 있으면서 ... " (78세의 할머니)

"여인들은 자식 특히 아들이 많이 있는 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집안이 잘되려면 아들 셋에 딸 하나는 있어야 돼 ... " (78세의 할머니)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하루 세끼 먹는 건 똑같잖아 ... 아들 셋에 딸 하나면 아주 유복하다고 했어" (72세의 할머니)

이외의 응답에서 나타난 핵심단어를 빈도수로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즉 응답자가 말한 이상적이고 다복한 가족에는 '시부모를 공양하는 며느리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아들이 둘 셋은 있어야 하면서 아들 수 만큼의 딸은 필요없으나 딸도 있으면 더욱 좋고, 부부가 서로 위해주면서, 밥 굶지 않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표 2〉 이상적 가족상²⁾

단 어	빈도수	단 어	빈도수
자 식	7	화 목	2
아 들	11	경제적 안정	2
시부모 공양	7		

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에 분명할텐데 경제적 안정보다는 아들과 자식이 이들에게 이상적 가족이 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이상적 가족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異口同聲으로 외치는 ‘아들’은 전통사회에서 말하는 가계계승자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자녀에게 바라는 인품과 덕목을 살펴볼 때 다시 논의되겠지만, 이때의 아들은 ‘가계계승자’의 의미보다는 1950·60년대 혼란한 사회속에서 당당하게 살아남기 위한 ‘도구적 존재’로서 가계의 신분상승을 가능하게 해 주는 ‘아들’의 의미가 더 컸으며, 아들을 통해 가족전체의 안락한 삶을 보장받으려 하는 의도가 더 컸으리라 생각된다.

반면 이들은 또한 시부모의 부양을 말한 경우도 7사례나 된다. 이들이 현재 시부모로서 공양받아야 할 처지가 이런 대답을 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나 이때 공양이 반드시 물리적인 동거를 의미함은 아 님에 틀림없다. 특히 아들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장남의 분거 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장남이 부모를 반드시 모셔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남의 분거는 ‘죽거나 직장 때문이라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들은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책임’이며, ‘의무’라고 강조하면서도 직장을 이유로 분거는 ‘죽음’과 같이 매우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받아들여야 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적어도 3세대 가족이 ‘식구’로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대가족의 개념은 붕괴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해 주었던 것으로, 직장을 찾아 도시로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혹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또 성공의 한 모델로까지 제시되었으며, 젊은 부양자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노부모를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함께 살아야 된다는 ‘대가족’의 붕괴가 서구의 ‘핵가족’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당시를 회상하며 노인들이 운운했던 ‘핵가족’은 서구의 ‘핵가족’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장자위주의 직계가족주의의 원리와 집 위주의 태도를 지향하는 ‘부부와 그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소가족을 의미한다.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삶이 가능한 가족이 되었는데, 사회구조의 변화로 도시를 생활단위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월급’이나 ‘별이’로 생활이 가능해진 개인단위의 삶이 가능해지긴 하였으나 응답자 중 어느 누구도 개인단위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들의 자녀가 개인단위의 삶을 원할지도 모르나, 자녀의 독립적인 개인단위의 삶을 부모로서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가족들이 생존과 안녕을 위해 뿔뿔 뿔칠수록 가족밖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기계적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애정적·정서적·서정적인 욕구는 뿔뿔 뿔친 가족내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가족은 이제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한 도구적 개인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정서적 만족의 장으로서, 갈등과 소외로부터 구분되는 보호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요되고 있다. ‘정서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은 현대 가족의 가장 큰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정서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인 ‘화목’을 말하는 응답자는 두명뿐이 없었다. 이상적 가족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은 정립되어 있었으나, 다복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지혜’는 부재되어 있는 것이다.

2) 〈표 2〉와 더불어 앞으로 제시될 표의 핵심단어는 응답 과정 중에 나온 것을 합한 것이므로 빈도수의 합계가 다름.

2. 부부윤리

오늘날 부부관계의 바탕으로 가장 당연히 제시되는 것은 물론 '사랑'이며, 부부간 애정의 정도는 이혼의 '당당한' 판단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있어 부부간 애정없이 사는 것은 삶을 윤희하는 행위로까지 묘사되고 있다.

그럼 자신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채 부모의 결정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던 노인에게 있어 1950·60년대 당시의 부부관계의 근간이 되는 바탕은 무엇인가?

이는 두가지로 대별된다. 우선 '법'과 '인연'을 말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사랑은 모르고 살았어 ... 미련했지 옛날에는 법으로 살았어 ... 살아야 되는 건 줄 알고 살았지" (77세의 할머니)

"법으로 살았어. 자식낳고 사는 거라고 하니까 살았어요" (76세의 할머니)

"부부라는 인연을 맺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 애정이 있었나?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 " (74세의 할아버지)

"그냥 살았어, 부부니까 사는 거지 ... " (83세의 할머니)

"내외간에 좋아도 살고 싫어도 사는거지 ... 무슨 정이 좋고 ... 그런건 별로 모르고 살았어요" (78세의 할머니)

"의무적으로 ... 법으로 살았수 ... " (75세의 할머니)

'법'으로, '인연'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 당시의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들은 부부관계를 '운명적인 결정'으로 여겼으며, 이 관계를 도전하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이 '운명적 결정'을 뒤엎을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사'가 없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혼은 수치지기에', '이혼은 곧 삶의 실패'를 의미하므로 '희생'하면서, '부모님의 결정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해'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부부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운명적 관계로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의 친밀성을 돈독하게 해주는 요인을 물었을 때, '그런건 몰라', '뭐 그렇게 있냐'라는 대답(8명)은 이런 의미에서 승승이 가는 당연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반면 부부관계의 바탕을 묻는 질문에 많은 응답자가 자식과 아들을 언급하였다.

"자식이 있으니까 ... 살아야 되는가보다 하고 살았지" (76세의 할머니)

"아들 공부시켜야 하니까, ... 마누라하고 살았지요" (71세의 할아버지)

"자식 낳아서 건강하게 잘 크면 사는거지. 여자를 아껴주는 사람은 아껴주는 거고, 성격에 따라 다르지 뭐, ... 그래도 자식세끼가 부부관계를 이어주는 거였지요" (78세의 할머니)

"자식이 (부부의) 끈을 이어준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75세의 할머니)

"부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 자식을 갖는 일입니다" (78세의 할머니)

"자식은 생기는 대로 넣고, 자식 키워서 호강하려고 했지 ... 부부보다는 자식이 우선이야" (83세의 할머니)

이 당시의 자식은 이상적인 가족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부부관계를 '공고히' 해주면서, 그 관계의 바탕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 가족의 주축이 부부관계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데, 이 때의 가족관계의 중추는 부모자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관계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장남이 아닌 지차아들이, 부모세대로서는 아버지 아닌 어머니가 비교적 당당하게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 당시 부부간 대화의 주된 내용이 '자식에 관한 일'이 대부분이었다(8명)고 말한 것은 앞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는 어떤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견비되어야지만 바람직한 남편, 바람직한 아내가 되는 것일까?

우선 바람직한 남편에 대한 응답은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남편으로서 '못된짓'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응답이 있었다.

"옛날에는 우리 남편 범상에 만주라고 해서 막걸리가 꼭 올라와야 했어. 내가 그 술 심부름을 얼마

나 많이 했는지 ... 아들이 커서 나 대신 술을 사다 날랐지 ... 술만 좀 덜 먹었으면 좋겠다는 ... 아니 술만 먹고 좀 잤으면 좋겠는데, 꼭 많이 먹어가지고 주정을 하니 원 ... ” (77세의 할머니)

“우리 영감같은 사람도 없을까야. 내가 저 영감 오입질하는거 보면서 한평생을 살았다. 나는 살면서 영감이 이 여자, 저 여자랑 놀아나는데 ... 영감이 씨앗을 불까봐 한평생 얼마나 맘졸이면서 ... ” (76세의 할머니)

“전에는 때리고 부수는 사람이 참 많았지 여편내를 그야말로 사흘에 한 번씩 북어패듯이 패는 사람이 많았어요. 때리지 말고 노름하지 않으면 살겠다고 하는 동네 아낙들이 많이 있었어요” (75세의 할머니)

“돈을 좀 모아놓으면 할아버지 쪽 가져가고, 새끼 가르쳐 불라고 좀 감춰두면 개가 고기뽕새 말듯이 돈을 그렇게 잘 찾더라 ... 날 험박해서 가져가고 ... (지금 생각해 보면) 달라고 그런다고 별 군말 없이 취버린게 너무 한심스러워 ... 아마 그 돈을 모았으면 집 한채는 샀을걸” (78세의 할머니)

그 시대의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규범에서 이탈되지만 양면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많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는 태도로 일상의 생활이 ‘별일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랬다.

두 번째로, ‘가정적’인 남편을 말하는 것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상한’, ‘너그러운’, ‘대화를 많이 하는’, ‘빨리 귀가하는’ 남편을 말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못살아도 나무를 저다가 부엌에 쌓아주고 ... 꼭 말로 안해도 알아서 하고 ... 부인한테 살갑게 해주는 사람들이 부러웠지 ... ” (77세의 할머니)

이런 유형의 응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부인이 ‘도구적 존재’로서의 남편이 아닌 ‘정서적 존재’로서의 남편에 대한 요구가 불거져 나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남편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서,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며 엄격한 ‘아버지’, ‘남편’과는 다른 모습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남편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응답으로 미루어 보아 이런 남편들이 많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빈도수가 많은 응답으로서, ‘가

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이상적인 남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이다.

“좋은 남편감이 따로 있나 돈 많이 벌어오면 최고지, ... 황소같이 일 잘하는 남편말고 뭘 더바래 ... 생활력이 있어야지” (76세의 할머니)

“남자가 남자다워야해요. 뭐니뭐니해도, 부인일에 간섭하지 말고 남자로서의 위신을 지키면서, 권위를 갖고 ... ” (74세의 할아버지)

“남편은 ... 든든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 식구들의 생활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지요. ... 생활력이 강해야 돼” (85세의 할머니)

“... 근면해야 되지요. 비가오나 눈이오나 처자식을 꼭 먹여야 ... ” (81세의 할아버지)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경제적’인 역할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먹고 사는 것’을 부인이나 자식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력 있는 남편’은 부러운 대상이었던 것이다.

한편 6·25 이후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전쟁에서 필요로 했던 ‘남성’들이 전장에서 ‘사망’, ‘부상’ 또는 ‘행방불명’ 됨에 따라 ‘여성’의 역할은 자못 달라졌다. 이제 남편, 아들을 도와서 일을 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고 여성들이 밭벗고 일을 찾아 나서야 했으며,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했다. 전통적인 여성상을 덕목으로 살기에는 여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이 너무나 적박했다.

<표 3> 이상적인 아내상

단 어	빈도수
시부모 공양하는 아내	4
살림 잘 하는 아내	6
순종적인 아내	5
자식 잘 기르는 아내	3
정결한 아내	2
남편내조 잘하는 아내	2
동기간 우애좋은 아내	2
덕 있는 아내	각 1회
알뜰한 아내	
확별 좋고 집안 좋은 아내	
남편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에도 나타나듯이 이상적인 아내상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가 '전통적 여성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들을 언급하였다.

즉 '시부모를 잘 공양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잘 하면서', '남편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며', '동기간에 우애가 좋고', '순종적'이어야 하며, 더불어 '살림을 잘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자식을 잘 길러야' 함은 물론이고 '정결'하면서 '알뜰'하고 '덕이 있어야 하며', '학벌 좋고 집안 좋으면' 금상첨화인 것이다. 이런 응답이 9명의 여성노인, 4명의 남성노인에 의해 나온 답이므로 그 시대 여성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역할 규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힘하고 고된 세월인 50년대, 60년대를 여성이 이런 덕목을 구비해서 살아나가기란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덕목을 갖춘채 여직 '또순이'로 사는 슈퍼우면들이 많았던 말인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의식하는 역할기대와 일상에서의 역할수행은 괴리가 컸음이 자명한 일이며, 이 커다란 괴리로 인해 나타난 가치관의 혼란은 여러 문제를 수반하였을 것이다. 즉 일상에서의 역할과 의식에서의 역할간 차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왔을터이고 이는 실생활 장면에서 일관되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옥선화(1975)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근대적인 가치관인 평등과 독립을, 자식세대와의 관계에서는 전근대적 가치관인 복종과 종속을 지향함으로써 삶이 이중적 가치관으로 點綴되게 된다.

3. 부모자녀 윤리

현대가족의 특징으로 '자녀중심적 사고의 강조'를 들 수 있다. 과거에도 자녀 특히 아들은 가문을 계승해야 할 중요한 존재였으나 오늘날은 가계계승자로서의 '아들'과 '자녀'의 의미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성별과 출생순위가 희석되면서 능력있는 개인으로서의 '자녀'는 가족에게 커다란 자원이 된다.

유교주의로 대표되는 조선사회에서 '효'와 '충'을 숭상하는 가운데 그 행실의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은 이 시대 구성원 대부분에게 있어 통합된 신념으로서 그들의 삶의 실천 원리로 작용하였다.

조선조 말 몰락한 많은 양반과 부를 가진 신흥상민층은 신분제에 불만을 가졌으며 이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평등주의'를 자각하게 되었고, 이런 사고는 신분과 관계없이 열려진 대중교육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가문, 신분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더욱 우대받는 사회이기에 개인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교육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대한 관심과 열기를 표명하였다.

1950·60년은 앞서도 기술하였듯이 아노미적인 혼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유교적인 인간으로 삶을 유지하기란 무척 힘들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부모자녀간의 윤리적 실상과 특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오늘의 부모자녀간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우선 노인들에게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속에서 특히 강조했었던 덕목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은 대략 두가지로 대변된다.

이 당시에도 노인들은 전통적인 부모자녀 윤리나 기타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강조되어온 덕목들을 자녀에게 강조하였다.

즉 응답자들은 부모말에 '순종적'이면서, 부모님께는 '효도'를 하고, 어른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가운데, 행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과거의 바람직한 삶의 지혜로서의 도덕적 윤리외도 상통하는 것이다. '착하고', '정실하고', '성직하게' 행동하면서, '바르게' 살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위해 갖추어지야 할 덕목으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조되어온 덕목이다.

부모로서 그들은 자녀에게 '예의 바른' 생활태도를 통해 부모자신에게 '순종'하면서 행제간에 '우애'를 도모하고 모든 일에 '정실'하며 '바르고', '성직'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부모자

신도 이런 덕목을 행동으로 옮겼는지, 그리고 이들이 강조한 덕목이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자식에게 얼마나 설득력있게 전달되었는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예의, 효행, 순종이 강조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이런 가치관과 더불어 부모들이 이것 못지 않게 강조한 덕목이 있었다.

“그때 우리 아들이 맨날 맞고만 들어오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른 애들이 너를 한 대 때리면 너는 열대 때리고 오라고 그랬어. 그리고 맞고 들어올 때는 나도 막 야단친 적도 있었다. … 이겨야지 뭘하는 …” (76세의 할머니)

“지금처럼 똑같이 뭐 그저 공부 잘해라 …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야 명문학교 가는 거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서 출세할 수 있는거지 그땐 (애들을) 참 많이 때렸지 … 사람이 사람답게 남한테 칭찬도 받고 부러움도 받아가면서 사는거지” (78세 할머니)

“공부 열심히 시킬려고 했어 정말 내가 아들 딸 공부시킬려고 이를 악물고 … 내뽐 상하는거 모르면서 일했어” (72세 할머니)

“말과 행동이 예의 바르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 (85세 할머니)

“남한테 해꼬지 하지 말고, 또 뒤지지 말고 … 남의 뒤 쫓무니를 따라 다니지 말고 지지 말고” (75세 할머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자가 턱없이 모자란 가운데 어쩌면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편이 될런지도 모른다. 비록 의식속에는 大我的인 인간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이 있을지라도 '눈 감으면 코 베어 갈' 이 시대에 이런 덕목으로는 자식들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는 가운데, 이들은 그것보다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생활의 기교를 강조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을 것이다.

해방이후 도덕적 무정부 상태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은 양심과 도덕에 대하여 냉소적 태도를 취한 사람들을 '예외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손해를

보게 마련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었고, 도덕적인 사람이 바보대접을 받는 것이 다반사였다(김태길, 1995). 그러기에 앞서의 덕목에 '공부 잘하는 것'과 '경쟁에서 지지않고 살아남는 것'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반드시 전수하고 넘어가야 할, 내 자식의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비법'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닐까.

이와같은 태도는 자녀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인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도 나타나 있다. 즉 가훈이나 교훈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덕목들이 거품처럼 견뎌내, 이 당시의 부모들이 참으로 원했던 子女像이 무엇이었나를 다음과 같은 답변에서 엿볼 수 있게 한다.

“남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 가고 싶은 학교에 철썩 철썩 붙고” (76세의 할머니)

“인품이라는게 …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한다는 건데 그것이 결국 가장 큰 희망이었죠. 아무쪼록 나도 그렇고 그 때의 부모들도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74세의 할아버지)

“그때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 부모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은 있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 공부를 시킬려고 그렇게도 … 별의별 짓을 다하고 … 지금은 돈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하라는 애길 제일 많이 했어요” (78세의 할머니)

“요즘은 '!'자 붙은 직업을 그 시대에는 특별한 재질이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여겼어요. 관공서의 공무원 학교 교사를 부처 선호했지요. 인품이야 그런데서 나오는 거지요”(78세의 할머니)

“(자식이)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도 하고 … 근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75세의 할머니)

과거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 신분에 따라 '공부'를 할 수 있는 집단은 제한되었다. 신분고하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될 성원이 있었으며, 공부를 절대해서는 안되는 사회성원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서구문물은 산업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가르쳐주는 교육이라는 신무기를 성별과 신분과 연령에 관계없이 제공하였고, 중국에는 반드시 그러한 교육을 일정기간 받아

야 되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개인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풍조와 함께 학력이 일정 한도의 삶의 양적인 수준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이 가능해지게 된다.

유리니 도덕보다는 악씩빠른 눈치를 길러내는 혼란되고 긴박했던 그 당시의 생활속에서 부모들은 교육이라는 신무기를, 그리고 명분학교 졸업장이라는 품질보증서를 달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제한된 자원속에서 모든 자녀를 교육시키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여성인 딸과 누나와 누이동생은 희생되는 가운데 남성인 아들과 오빠와 남동생만이 그 교육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 당시의 사회시대상으로 미루어보아 적어도 부모일각에서는 나 하나만이 아닌 가족전체의 안녕을 위해서는 좋은 직장과 출세를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 공부와 명분학교의 진학은 바람직한 인품으로서 강조되어져야만 했다. 이때 공부가 인격을 수양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실질적 '도구'의 성격이 강했기에 가족내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전체에게 '도구적'인 성격이 강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제 부모자식간의 대표적인 유리인 '효'에 대하여 살펴보자. 원래 효란 父慈子孝 즉 부모는 자식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부모와 자식 쌍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고용복, 1991), 전통사회에 있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百行之本으로 강조되어 왔다. 17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효는 부모가 자식의 삶을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삶의 주체자로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였으며(김일명, 1995; 성미애, 옥선화, 1997), 우리 전통 사회의 문화적 바탕이 되는 불교에서도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이정덕, 1992), 우리의 부모자녀 유리는 쌍방적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성리학적 효규범은 충보다

더욱 우선시되는 가치기준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일방적인 예측과 복종만을 강조하는 규범으로 변질되었다. 강력한 가부장권을 바탕으로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에게 무조건적인 '효'를 행하지 않으면 삶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런 일방적이고 예측적인 효규범은 군신일체로서의 충효를 강조하는 天理帝 人倫으로가 필요했던 일본의 식민지 교육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우리는 이런 효규범의 변화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8·15해방과 6·25전쟁 등의 극심한 세월을 거치면서 효규범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가가 궁금하였다. 이를 위해 '효' 그 자체에 대해서 묻는 것은 행동과 동떨어진 '개념'으로서의 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일상속에서 자리잡은 실상으로서의 효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의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식의 효를 기대하는가를 질문하였고 이는 효 규범이 시대상황에 걸맞게 변화를 거듭했으므로, 이 규범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우선 17세기 이후부터 강조되어온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의미하는 효규범을 들 수 있다.

"효가 뭐 대단한 건가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 부모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모시고 ... 순종하고 속 안색이면 잘 하는 거죠. 부모 걱정 안시키고 ..." (78세의 할머니)

"부모한테 심려를 끼치지 않는 자녀가 효도하는 거지" (72세의 할머니)

"부모한테 산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했어요" (78세의 할머니)

"늙어 죽을 때까지 구박하지 말고 편안하게 모시는게 효도하는 거지요" (85세의 할머니)

"어머니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게 ..." (75세의 할머니)

"부모 마음 썩이지 않는 것이 효도 ..." (83세의 할머니)

"한양 같은 데 가 있는 자식이 언제 명절이고 ... 오셨어요. 그런 동네에서 모두 구경을 와요. 동네분들이 와 가지고서는 왜 선불 무리비 같은걸 서로들 뒤져보지요. 서로 이걸 사왔다 뭘 사왔다 ... 아주 흥분하구나 ... 부모한테 효도하구나" (74세의 할

아버지)

“자식한테는 효도를 바랬어요 … 엄마,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 적극적인 효도예요 … ” (70세의 할아버지)

이상의 응답에서 분명한 것은 이런 의미의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효규범이, 과연 평등과 독립과 개성을 존중되어야 할 미덕으로 교육 받은 자녀세대도 동의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적극적인 효’와 부모의 뜻에 따르는 ‘무조건적인 순종’은 그들 응답자 자신이 자신의 부모세대에게 행했던 규범이었다. 이때 이들 자신은 자신의 부모세대와 함께 이 규범이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것으로 통합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하여도 부모가 된 자신이 그들 자녀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효로서 강조하기에는 부모-자식간의 의식의 체계가 다를 개연성이 컸다. 그리고 이런 기대차이는 부모 자녀세대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독립된 삶을 강조하면서 비교적 부모자식간의 분명한 경계선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 부모세대는 앞서 응답한 부모들보다는 세대의 흐름을 비교적 잘 읽은 축에 든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순종’ 하라고 해도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며, ‘적극적인 효’를 행하라고 해도 그들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효도는 무슨 효도’, ‘기대도 안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한톨이라도 줄 수 있을 때 좋은 거지’, 또는 ‘주는 것에 만족한다’는 응답 속에서 이들은 ‘자식들이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도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들의 주목을 끈다. ‘자네들만 잘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 그들의 응답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어려웠던 세월의 고됨을 경험했던 ‘희생적인 부모’로서의 노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식의 안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이 가진 자원과 시간을 거의 소모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노후에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러기에 내가 나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원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이때에 그 자식들도 부모의 효개념에 동의하여 ‘우리 부모님 속 꿩이지 않고, 나와 내식구가 잘 사는 길만이 부모님을 위하는 진정한 효’라고 여길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게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노인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람직한 덕목으로 ‘공부’, ‘출세’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부딪치는 ‘경쟁’의 터전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기회와 효를 학습하고 실천으로 옮길 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였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관념으로서의 효는 자녀세대의 행동과 태도속에 녹아내리지 못하였다. 일상의 행동과 머릿 속의 덕목이 맞물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중적 규범이 이 둘의 틈새에 끼여있을 뿐이다. ‘자식의 안녕’을 진정한 효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노인들은 자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효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노인들도 있었다. 자신들이 효도를 받아야 할 처지에서 ‘효’를 말하는 것이 ‘남사스러운 일’로 여길 수도 있다. 또 ‘어느 정도의 효’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한 상처들이 가슴 속에 자리잡혀서 아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다.

또한 ‘자식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만족한다’는 그들의 대답속에서 신문지상과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짐찍’처럼 되어버린 노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가 그 보다는 훨씬 나음에 대해 ‘안도감’을 내비치고, 어떤 작은 것이라도 받는 것보다는 줄 수 있는 자신들의 입장을 매우 당당하게 여기는 모습이 노인들과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었다.

즉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우리’가 곧 내가 되고 너가 되는 가운데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만을 강조했던 조선사회의 효규범은 1950·1960년대 사회적·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탄은 그 규범의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는 ‘자식들이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응답속에서 이제까지의 효규범과는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처럼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만을 강조하기에는 자라나는 자녀가 갖게 될 자원과 힘이 부모의 그것과 비교해서 훨씬 컸다. 부모로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자녀세대에게 설득력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상의 생활에서 효규범이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하나 이 시대의 부모들은 그러하지 못하였기에 부모가 체념하는 방식으로 차츰 자리잡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IV. 맺음말

가족 속의 개인과 사회 속의 가족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 집단들이 요구하는 행동규범과 도덕규범이 나타나게 된다. 조선 사회에서는 '유교적 가족주의'라는 규범이 있었고 이 규범은 가족내부를 통합시킴은 물론이고 가족 외부에서도 확고부동한 규범원리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된 행동체계와 가치체계에 의해 진행되었던 우리의 가족제도와 가족윤리는 일제의 식민지, 8·15해방, 6·25전쟁에 의해 크나큰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

해방당시는 전 국민의 77%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사회였다(장상환, 1985). 그러나 소수의 대 지주가 땅을 점령하고 대다수의 농민은 영세한 소작농으로 전락한 채 살아갔던 1945년 전후의 생활은 일본 근대화회의 희생양으로 低賃金, 低米價 구조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이 땅 사람들의 경제작기만을 흔들어 놓았다. 이어 1945년 타율적인 해방이 주어지는 순간 곧바로 한반도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 구조와 수직적 분업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1950년대 한국경제는 원조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무상으로 한국에 상륙시킴으로써 국내 농산물과 상대도 되지 않는 가격경쟁은 우리의 농업경제를 다시 한번 파탄으로 몰아갔다.

지정학적인 위치로 한반도는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해 중국대륙과 일본열도로부터의 무수한 침략으로 고초를 겪어야 했다. 봉고의 부마국으로 살아야 했으며, 이후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식민지의 수난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6·25는 과거의 전

쟁과는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된다. 즉 國際戰이자 內戰인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거의 모든 가족이 사망, 부상, 행방불명 등의 가족원을 가진 상처를 쓸어안은 채 자신의 집과 땅과 고향과 이웃 등의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는 지리적 이동을 강요당해야 했다.

한편 이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48년 단독정부 수립이후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승만 정권의 정치파동, 4·19혁명, 5·16사건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은 이 땅의 무질서를 가중시켰다.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 한국의 至高地上의 국가목표로 자리잡은 것이 '만공'이다. 한 시인의 회상은 이런 상황을 가장 실감나게 웅변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다.

"일제 전제체제에서는 ... '황국신민'의 서가를 위위대는 것을 절대부르로 삼아야 했다. 1950년대의 ... 남한에서는 '우리의 맹세'를 모르던 그 부지가 바로 적으로 간주되었다. ... 말하자면 나는 '황국신민의 서사'와 '우리의 맹세' 시대의 자식이다. ... 시 가운데 '붉은 꽃'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으레 조사를 받아야 했고 부모도 자책구도를 친고 다니면 '너 빨갱이 아니냐' 하는 사찰계 형사의 사나운 눈 초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므로 시인들도 붉은 꽃이 아닌 하얀 꽃이나 도란 국화 따위를 노래해야 했다"(손호진, 1985).

즉 획일적으로 강요된 이데올로기는 있으나 삶에서 부딪치는 중요한 문제들과 인간관계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해결을 위한 처방으로서의 '삶의 지혜'는 없는 가운데 1950·60년대는 이전과는 다른 가족윤리와 가족제도를 낳고 있었다. 원만한 인간관계와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이나 도덕이 부재하였던 것이다. 아니 어느 시대건 규범과 도덕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므로 이런 규범에도 불구하고 얼룩진 1950·60년대의 시대적 혼란이 이 땅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도덕적 불감증'을 유발시켰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1950·60년대 아노미적 혼란 속에서 양적 제일의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에비준으로 전 국민이 동원되는 가운데 도덕이나 윤리 따위의 덕목은 타인에게 보여지기 위한 '포장지용 규범'으로 자리잡으면서 규범

이 생활 속의 일상성과는 표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가정생활속에서도, 정치구조속에서도, 경제구조속에서도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규범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치관의 혼란만이 가중되었다.

해방조국의 경외의 대상이었던 '풍요의 땅', '지상의 천국'인 미국에서 들어온 민주적 가치, 평등적 가치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스며들지 못하고 곁들기만 한 채 우리가족과 개인은 '내 가족의 영속과 안녕'을 위한 '이기적 가족주의'로 치닫게 되었다. 특히 박정권이 '근대화'라는 기치아래 '경제성장제일주의'가 지상목표로 선정되어 군사작전같은 상명하복의 질서 속에 전 사회가 이를 위한 동원체제화됨에(손호철, 1995) 따라 우리가족과 가족내 개인의 '도구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1950·60년대를 30·40대로 살아갔던 노인들은 다복하고 이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식 특히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때의 아들은 과거의 '가계계승자'의 의미보다는 신분상승을 위한 '도구'의 성격이 강했고, 이들에게는 '공부', '명문학교 졸업장', '출세', '좋은 직장'과 같은 도구적 수단이 바람직한 덕목으로서 강조되어졌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자식'이 그 관계의 근간이 되는 바탕으로 인지하면서, 부부됨을 '법', '인연'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 또한 가족내 여성은 전쟁으로 사망·부상한 남편,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경쟁력을 상실한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공부시키는 가운데 주부, 어머니, 며느리, 아내의 역할이 점점 가중되었다.

그 가운데 과거와 달리 성별이나 출생순위의 의미가 희석된 '자녀'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가족의 안녕에 당당히 기여하기에 이르렀다. 또 父子 즉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쌍방적 의무를 강조하는 부모자식간 대표적 윤리규범인 효는 50년, 60년대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혼란을 거치는 가운데 과거의 '순종적'이고 '적극적인' 효규범의 의미는 규범을 위한 규범으로 남은 채 '자식들이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도 아닌 또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도 아닌 달라진 효규범이

자리잡게 된다. 즉 이 시대를 기점으로 하여 17세기 이후 굳게 자리를 지켜왔던 효규범에 변화가 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화가 사회의 발전을 통해 삶의 질과 삶의 기회를 향상 증대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아실현에 도움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로 향해 가는 구조적 변동 과정을 뜻할 때(김경동외, 1979) 우리사회는 과연 근대화되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산업화·도시화는 사회경제적 조직에서 인간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우리의 경우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기초한 민주적·평등적 가치가 일상의 생활속에 녹아내리지 못한 채 경쟁을 통한 성취만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가족은 전통적 가족주의의 골자만이 더욱 강화되면서 가족이 지위와 신분 재생산의 기제의 지나친 강조는 가족내에서도 가족 밖에서도 언제나 나 아닌 타인과 '경쟁'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역기능적인 행태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족과 사회에서 삶의 질과 삶의 기회를 향상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우리 가족안에서 민주적 평등적 가치와 같은 윤리적 덕목들이 發芽되어 일상속으로 스며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의 체험을 통한 1950·60년대 가족윤리의 고찰은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를 지향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고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양극성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남성의 경험과 여성의 경험의 차이와 농촌과 도시에서의 경험의 차이 그리고 연령이나 기타의 사회적,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1950·60년대 가족윤리를 규명하는 작업은 소설과 잡지, 신문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분석 등의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하려 한다.

■ 참고문헌

- 1) 고영복(1991). 한국사회의 구조와 의식,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 2) 김경동 외(1986). 사회조사연구방법, 박영사.

- 3) 김경동, 임종철, 이흥구, 김여수(1979), 근대화: 그 현실과 미래, 서울대출판부.
- 4) 김일명(1995), "삼국유사에 나타난 가족윤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김태길(1990), 변혁시대의 사회철학, 철학과 현실사.
- 6) _____(1995), 한국윤리의 재정립, 철학과 현실사.
- 7) _____(1997), "공자의 인간관과 현대의 문제상황", 공자사상과 현대사회, 다산기념철학강좌 발표문.
- 8) 동아일보사(1975), 동아연감, p40.
- 9) 박용옥(1985), "6·25전란이 가족제도에 미친 영향", 6·25가 한국인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현대사상연구소편, 성신여대 출판부.
- 10) 서정희(1996), 가정학 연구방법론, 하우.
- 11) 성미애, 옥선화(1997), "효규범에 대한 사적인 고찰: 호혜성 및 공정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권 3호.
- 12) 손호철(1995), "한국의 국가목표: 반성적 회고", 철학과 현실 가을호, 철학문화연구소.
- 13)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_____(1975),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
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권 4호.
- 15) 이정덕(1992), "불교의 가족윤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이정덕, 전미경(1995), "가족내 종교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권 4호.
- 17) 장상환(1985), "해방후 대미의존적 경제구조의 성립과정", 해방 40년의 재인식 I, 송건호, 박원채 외 지음, 돌베개.
- 18) 조혜정(1994), 탈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각자 선 자리에서,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 19) 최정세(1987),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945-1960 김대화 외 지음, 열음사상총서 14, 열음사.
- 20) 황덕순, 한경미, 홍은실(1995),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한가정학회지 논문내용 분석: 1959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 33권 3호.
- 21) 최재석(197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 22) 최홍기(1994), "유교와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한국가족학회편, 교육과학사.